

제 1 차 세계대전직후 쏘베트로씨야와 유럽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

리 창 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세계적규모에서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반공의 간판밑에 자기 나라 인민의 혁명인식을 마비시키고 대외침략을 위한 사상공세를 미친듯이 감행하여나섰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48페이지)

제1차 세계대전직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유럽을 비롯한 세계적규모에서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영향력을 가로막기 위하여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이 시기 유럽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가로막아보려고 가장 악랄하게 책동한것은 침략과 략탈을 기본생존수단으로 삼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앞장에서 파괴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이였다.

미제는 무엇보다먼저 신생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반혁명적공세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요람기에 말살하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였다.

1917년 10월 로씨야에서는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하여 짜리전제정권을 대신하여 출현한 반동적인 립시정부가 무너지고 쏘베트정권이 수립되게 되었다. 이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세력권형성에 파렬구를 뚫으로써 지배권확립을 위하여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권확립에 주되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한 쏘베트로씨야를 초창기에 말살해버리지 않으면 로씨야라는 광대한 지역과 인적, 물적자원을 잃게 되고 그와 립접한 지역과 나라들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주의의 력량이 확대될수 있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책동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그 어느 제국주의렬강보다도 쏘베트로씨야를 고립말살해버리기 위하여 무력침공을 포함한 가장 악랄한 책동에 매여달리였다.

미제는 쏘베트로씨야를 요람기에 말살하기 위하여 우선 쏘베트로씨야정권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상품수출금지조치를 취하였다.

미제는 로씨야에서의 쏘베트공화국의 출현을 미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현존하는 사회질서에 대한 극히 현실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제국주의렬강들을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데로 적극 떠밀었다.

미제는 당시 모스크바주재 대사인 디 프랜시스에게 쏘베트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것을 훈령하였으며 상전의 지시에 따라 그는 갓 태어난 쏘베트로씨야정부에 쏘베트정권을 포기할것을 요구하는 반혁명적인 문건 《로씨야인민에게》를 제출하였다.

미국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917년 12월 6일에 직접 재외대표부들에 쏘베트정부와의 어떤 공식적인 접촉을 가지지 말데 대한 비밀지령을 하달하고 쏘베트로씨야를 인정하지 않는것을 국가정책으로 선정하였으며 1918년 1월 국회에서 대외정책강령인 《14개조항》을 발표하여 쏘베트정부의 평화애호정책실행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월슨의 《14개조항》에 있는 《로씨야에 대한 우의적동정》이라는 문구만 보더라도 그것은 저들의 반쏘정책과 무력간섭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한갓 병풍에 지나지 않았다.

미제는 1918년 3월에 진행된 제4차 전로쑤베트대회에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저들의 《관심》과 《애착》에 대한 위선적인 문구들을 반영한 각서라는것을 보내어 마치도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지 않는듯 한 여론을 환기시켜보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쏘베트로씨야가 1918년 3월에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의 탈퇴를 의미하는 브레스트-리톱스크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레닌이 직접 1918년 5월 12일에 채택한 대외통상발전계획을 당시 모스크바에 와있던 미국적십자사 사절단 단장이었던 로빈스에게 편지로 전달하였으나 쏘베트정부를 말살해버리기 위해 이 모든것을 묵살해버리었다.

특히 미제는 쏘베트정권이 내놓은 평화발기를 걸음마다 묵살해버리고 《민주주의적강화는 미국의 열망》이라는 위선적인 선전에 매달리면서 쏘베트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쏘베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에 매달리는 한편 로씨야에 대한 전면적인 상품수출금지책동에 열을 올리였다.

미제는 1917년 11월 미합중국군사-통상평의회의 특별결정으로 태평양을 경유하여 로씨야에 들어가는 모든 상품들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데 대한 지령을 각국의 대표부들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로씨야에 대한 상품수출을 금지하여 오래동안 전쟁으로 기아와 빈궁에서 헤매이고있는 인민들에게 고통을 들씌움으로써 쏘베트정부에 대한 로씨야인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미국내에서도 반동적인 출판물들은 공개적으로 정부의 반쏘정책을 지지하면서 도이칠란드와 강화조약체결문제에서 자기의 립장만 고집하는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미제는 쏘베트로씨야를 요람기에 말살하기 위하여 또한 국내반혁명세력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 반혁명적인 책동을 벌리도록 하였으며 그와 병행하여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력침공책동에 미친듯이 달라붙었다.

미제는 쏘베트로씨야정권이 태어난 첫날부터 국내반혁명세력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들과 합세하여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1917년 12월초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빠리에서 특별국제회의를 소집하고 제국주의렬강들의 힘으로 로씨야로부터 우크라이나, 북갑까즈,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지역들, 씨비리와 원동지역을 떼어내어 그곳 지역들에 반혁명정부를 조작할데 대한 분담안인 빠리《비망록》이라는것을 날조해내고 그것을 극비밀리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제는 1918년 11월에 도이칠란드가 국내혁명을 구실로 쏘베트로씨야와 맺은 브레스트-리톱스크강화조약을 위반하고 전쟁을 계속하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로씨야국내반혁명세력들에게 많은 무기와 자금을 대주면서 그들을 쏘베트정부를 반대하는 도구로 리용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제는 1919년 7월에 워싱턴에서 그곳 주재 폴차크백과도당의 대표부와 미국방성 사이에 60만명에게 차례지는 막대한 량의 탄약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폴차크백과도당에게 26만 6 000정의 보총과 3 000정의 기관총, 기타 군수장비들을 넘겨주었다.

뒤이어 미국은 폴차크백과도당에게 31만정의 보총과 3 400정의 기관총, 5억발의 탄약과 50대의 비행기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넘겨주어 씨비리지역에서 그의 세력을 확대하고 점차 모스크바에로의 침공을 다그치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미제는 1919년 9월에는 제니깁백과도당에게도 7만 2 000정의 보총과 30만발의 포탄을 넘겨주었으며 그후에도 4만 4 000정의 보총과 100여대의 탱크와 200여대의 비행기, 1 300여대의 자동차를 넘겨주어 백과도당들이 남부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점차 쏘베트정권을 붕괴시키도록 추동하였다.

미제는 1918년 5월 전쟁과정에 포로된 5만명의 체스꼬슬로벤스꼬포로군단이 쏘베트 정부의 승인밑에 씨비리지방을 걸쳐 유럽으로 이동하던 기회를 리용하여 씨비리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반동정부를 세울데 대한 흥계를 꾸미었다. 그리고 이 포로군단으로 하여금 6월과 7월사이에 씨비리와 우랄지역을 강점하고 불가강류역과 씨비리, 옴스크 지역에 백과정부를 세우게 함으로써 쏘베트로씨야정부를 위협하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하였다.

미제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뿔스까의 베우쑈쯔기도당에게도 수백대의 탱크와 비행기, 자동차와 각종 포, 많은 량의 보총과 탄약들을 넘겨주어 벨라루씨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의 침공을 단행하도록 하여 쏘베트로씨야를 사면팔방에서 포위공격하게 하였다.

미제는 쏘베트로씨야의 국내의 반혁명도당들을 사촉하여 반혁명적반란을 벌리게 하는 한편 일본과 프랑스, 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1918년 3월부터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력간섭의 길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5월 27일 무르만스크에 순양함 《올림피아》호를 들이밀었고 6월 9일에는 미 해병대무력을 상륙시켰으며 8월 2일에는 아르한겔스크를 완전히 강점하였다. 미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4월 5일 올라지보스토크를 침공하자 7월 8일에 일본과 원동지역과 씨비리지역에서 공동으로 무력침공을 감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미군 제27, 제31보병련대무력 9 000여명을 들이밀어 이 지역의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막대한 식량과 원료들을 계획적으로 약탈하여갔다.

그리하여 로씨야는 쏘베트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안으로는 반혁명도당들의 끊임없는 방해책동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무력간섭을 쳐물리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제는 다음으로 당시 유럽나라들에서 급격히 양양되고있는 혁명투쟁을 교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을 받아 도이칠란드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책동에 매여달리었다.

미제는 도이칠란드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진압하고 그것이 사회주의혁명에로 발전하는것을 저지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1918년 가을 도이칠란드주재 미국의교대표는 베를린에서 칼 리프크네히트를 수반으로 하는 쏘베트정권이 수립될 위험이 조성되자 현 반동정권에 즉시적인 지원을 줄것을 본국에 요청하였다. 미제는 지체없이 12월 27일부터 다음해 1월 5일사이에 드레젤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들이밀어 노스께를 두목으로 하는 군사독재를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1919년 1월말 드레젤의 뒤를 이어 단장의 임무를 받고 이곳에 기여든 헤랄디는 현 반동정부를 사촉하여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의 혁명투쟁을 진압하도록 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도이칠란드에서는 혁명세력에 대한 반혁명세력들의 류혈적인 탄압만행이 벌어지게 되었다.

미제는 1918년 12월 26일에 교수 쿨릿지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원에 급히 파견하여 부다페슈트와 프라하, 와르샤와, 리보브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반동조직들을 확대하는 한편 마자르, 오스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폴스까의 반동정부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미제는 마자르의 혁명운동을 탄압말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미제는 1919년 1월에 마자르의 수도 부다페슈트에 미국무성대표인 히유 김손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국내의 반혁명세력들을 규합하였다. 미제는 3월 21일 쏘베트마자르공화국이 선포되자 이를 반대하는 반혁명적인 무력간섭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이 비상히 극적인 사태를 극복할수 있는 최상의 수단은 무력간섭》이라고 떠벌이면서 적극적인 반혁명공세에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1919년 3월 22일 이미 원에서 활동하던 쿨릿지사절단을 소환하고 6월에는 이 나라의 내부실정에 밝은 이전 오스트리아주재 미국총령사 할스테드를 우두머리로 하는 새로운 사절단을 파견하여 마자르반동정부 내무상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노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었으며 6월 15일에는 평화적인 인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후원과 반혁명세력들의 책동에 의하여 마자르에 세워진 쏘베트공화국은 8월 1일에 창건된지 얼마되지 않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었다.

미제는 쏘베트마자르정권을 무너뜨린 다음 8월 4일에 미군부장령인 반드홀츠를 마자르에 파견하여 미군대좌인 이에프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마자르경찰조직특별위원회를 조작하게 하였으며 그를 마자르경찰 및 헌병대장으로 하는 치안무력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군사독재체제를 세워 국내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탄압책동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는 한편 남슬라브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특히 벨가리아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진압하는데도 적극 개입하였다.

미제는 20세기 초엽에 유럽에서 일어난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초창기부터 압살함으로써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위협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회주의력량의 확대를 막고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지배권확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보려고 필사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쏘베트로씨야인민은 쏘베트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외원쑤들의 간섭책동을 용감하게 쳐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 자기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여나감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었다.

미제의 반사회주의책동은 10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있다.

자주로 존엄높은 선군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령도밑에 최후결전이 벌어진다면 미제를 이 땅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기어이 실현해나갈것이다.